

글. 서양순

결핵이 힘들지만은 않았던 이유

2009년 1월, 새해를 맞아 처음 들은 소식은 친정엄마의 교통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놀란 가슴 끌어안고 추리닝 바람으로 눈밭을 달려 병원까지 부랴부랴 몸을 움직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엄마의 심부름을 했지요. 전 어린 세 자녀를 키우는 주부였기에 병원에 노상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 오가다보니 몸살이 오더군요. 긴장이 풀려서일 수도 있고, 집에서 입고 있던 추리닝 바람으로 병원까지 한달음에 달려간 것도, 환자가 많은 병원을 자주 갔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약 먹고 폭 자면 금방 털고 일어났었기에 뜨거운 방에서 몸을 지지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감기퇴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애들 셋 있는 집에서 어디 오랜 시간 누워있기 편한가요. 방학 때라 세 끼도 모자라 간식까지 길어 먹이려니 쉽게 누워지지가 않았어요. 약으로나마 빨리 떨어지라고 꼬박 챙겨먹었는데 약을 먹을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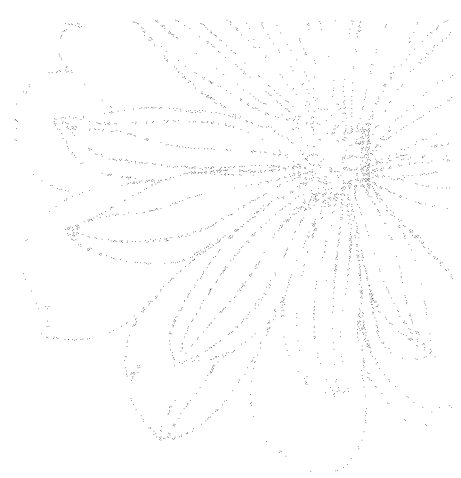
그러길 몇 주 지났을까요. 언젠가부터 기침이 심해지고 등이 아파서 잠을 자기가 힘들어지더군요. 병원이 집과 꽤 떨어져 있어 가기도 힘들어 여기저기 지식검색을 해보니 기침을 심하게 하면 늑골에 골절이 올 수 있다는 글과 폐렴 기사를 읽고 깜짝 놀라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네요. 그게 2월 말쯤이었어요.

아이들과 점심을 외식도 할 겸해서 세 아이들을 줄줄이 달고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아 예. 기침을 많이 하고 등이 아파서요. 혹시 폐렴인가 해서 외봤어요.”

“그럼 엑스레이 한 번 찍어 봅시다.”



잠시 뒤 의사선생님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음... 결핵 같네요. CT 찍고 피검사와 객담으로 정확하게 나와야겠지만. 가족들 전부 엑스레이 찍고 검사해봅시다.”

“네? 폐...결핵이요. 아니, 기침만 좀 했는데 갑자기 결핵이 오나요?”

그리 되묻고는 한참을 어리벙벙 앉아있었습니다.

TV 사극에서나 하얀 천에 피를 쏟아내는 걸 봤지 제게 결핵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멍하게 앉아있는데 번뜩 같이 온 아이들이 걱정되더군요.

부랴부랴 엑스레이를 찍고 긴장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웁잖으면 어찌지? 제발...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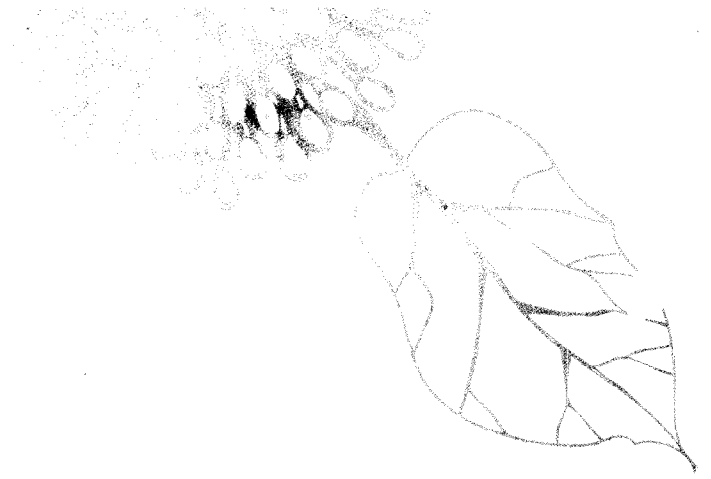
정말 다행으로 아이들의 폐 사진은 깨끗하더군요. 어리벙벙한 채 서둘러 집에 온 후 아이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해서 나름대로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밥을 차려두면 아이들이 나와서 밥을 먹고, 전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제가 쓰는 수건, 숟가락 등은 매번 뜨거운 물로 소독을 했지요. 행여나 기침하는 순간 아이들에게 옮길까 마스크를 하고 그 위로 목도리까지 동여맸어요. 그리하면서도 머리가 멍해 일손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밀검사로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일찍 와서 많이 나쁜진 않다며 항결핵제를 처방해주셨어요.

6개월간 꼬박 먹어야 하고, 하루에 4번 약을 챙겨먹되 한 번도 빠져선 안된다는 말 씬에 참 막막했습니다. 그쯤 남편도 급성간염으로 진단받아 노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로를 챙겨줄 만한 여유도 없이 저희 부부는 각자의 질환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 먹는 항결핵제, 식전에 먹어야 하는 약이 7알인가 8알인가로 기억됩니다. 행여 잊을까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꿀떡꿀떡 넘어오는 엄청난 가래와 당장이라도 심장을 토해낼 듯 해대는 기침 때문에 먹기조차 쉽지 않더군요. 기도로 넘어갔다 숨조차 못 쉬고 킁킁거리다 다행히 약이 도로 나와 벌겋진 얼굴로 평평 울었던 일... 두 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결핵은 제 삶을 한 번에 바꿔버렸습니다. 여린 세 자녀가 있는데 말걸 곳도 없고, 남편 역시 요양 중이라 각자 입원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며, 한 달간



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행여 옳을까 아이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냈어요.

가족들과 섞일 수 없다는 것도 버거웠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취침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간염으로 조용히 요양을 해야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밤낮으로 기침을 심하게 하니 요양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저는 저대로 많이 잠을 자야 좀 기운이 생길 텐데 등이 너무 아파 새벽이면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결국 나중엔 제가 낮에 자고 밤에 깨 있거나 남편이 반대로 하거나, 하는 식으로 잠을 청했고, 편찮으신 부모님이 택배로 보내주신 곰국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는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보니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찾아오더군요. 또 약을 다량으로 많이 먹으니 위액이 넘어와 그나마 먹은 것도 다 토해냈고, 늘 잠이 모자라 괜히 아이들에게 예민해져 신경질적인 엄마가 되어버렸죠.

한참 엄마손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두 형제와 5살 딸에게 미안하면서도 늘 방에서만 지내야 하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저 자신 스스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보니 한 달에 한 번 가는 병원 정기검진이 기다려지더라구요. 아이들에게도 그날은 맘껏 떠들고 놀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심한 기침이 차도가 별로 없고, 피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웬지 불길한 예감에 보험도 정리해두고, 아이들 내의도 깨끗이 빨아놨어요. 하얗게 살아진 내의를 보니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애에게 어린 두 동생을 부탁해도 될는지... 남편 혼자서 세 아이들을 잘 보듬을 수 있을지...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서 엄청 울었네요. 불과 한두 달만에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나 싶은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며칠 유난히 조용히 지내는 제 손을 남편이 꼭 잡아주더군요. 마스크를 써서 노란얼굴 위의 노란눈만 보이는데 그 눈으로 절 웃으며 바라보더군요. 남편의 미소에 삶에 대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내 어린 자녀들 잘 돌보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리고 그 날부터 남편과 손을 잡고 근처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약을 먹은 지 두 달 정도 되어서 전염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외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남편과 손을 잡고 걸으니 뭔가 살아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 행복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제 나이 32살에 참 많은 게 교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남편과 그렇게 손을 잡고 햇살 아래 걷고 얘기도 나누면서 신혼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그런 진중한 얘기들을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 애정을 말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몸은 비록 아프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유대감이 더욱 강해졌다고나 할까요.

덕분인지 그 뒤로 약을 먹는 게 덜 힘들고, 기침도 덜 고통스러웠어요. 날 응원하고 잘 극복할거라 믿어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말이죠. 남편도 물론 간염과의 싸움에서 더 강해졌구요.

아이들도 고사리 손으로 엄마 일손을 돕겠다고 설거지를 조물거리며 했고, 거의 이불 위에서 사는 엄마, 아빠를 위해 밖에 나가 이불 먼지도 털어주더군요.

뜨거운 물에 엄마 손가락과 젓가락을 담그면서 “엄마, 우리가 나쁜 세균 다 죽었으니깐 이젠 안 아플 거예요” 하고 엄지를 치켜들더군요.

평상시엔 먹고 사느라 바빠 느끼지 못했던 아이들의 따스한 마음을 이렇게 느끼고 나니 마음이 더욱 강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뒤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에 딱 맞춰서 약도 챙겨먹고, 저녁에 미리 죽을 쑤어 아침 식전에 죽을 조금 먹은 후 약을 먹는 등 저 나름대로의 최선책을 찾아 회복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귀찮음 때문에 늘 미뤘던 운동도 열심히 했고 세균 제로의 손가락과 젓가락을 밥상에 올려주는 아이들 생각에 입맛 없어도 맛있게 밥도 잘 챙겨먹었어요. 무뚝뚝한 성격인지만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지 않았었는데 낮잠을 자게 되면 아이들도 양쪽으로 팔베게 해주면서 같이 끌어안고 잠들곤 했네요.

그렇게 3개월에 접어들었고, 엑스레이 상에 처음으로 결핵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끗하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젠 유지만 남았어요.”

“식전에 먹는 약은 이제 빼도 되겠네요. 식후에 한 알씩만 드십시오.”

그 말씀에 저 정말 그 자리에서 손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폐에서 피가 올라오는 환자가 되어버렸고, 엉망이 된 삶에 이젠 빛이 비추는 게 싫어서요. 매달 뵈던 약사님도 “약이 효과가 있었네요. 잘 이겨내셨어요.” 하며 축하해주셨어요.

그 길로 집으로 얼른 뛰어가 가족들에게 얘기해주니 다들 얼마나 기뻐하던지, 남편

도 본 얼굴을 되찾은 지 얼마 안됐는데 연달아 기쁜 소식을 들으니 더욱 힘이 난다고 좋아하더군요.

가족의 힘으로 결핵을 이겨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력이 유난히 약한 제가 혼자였다면 어떻게 이겨냈을지. 그렇게 6개월 반을 딱 채우고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완치 판정 후 정기검진만 몇 번 더 받았습니다.

완치 판정받고 하늘을 참 오래도록 봤네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든 시기가 있었기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가족들의 소중함 그리고 감사함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기에, 오히려 그런 시련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편과 가끔 그때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있어요. 또다시 기웃거리릴 모를 결핵에 대비해 철벽 면역을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말입니다.

한파로 여전히 추운 날씨지만 전 오늘도 남편과 저녁운동을 나가려고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더욱 지켜야하니까요. †

